

“호남동행 외쳤던 국민의힘 아특별법 개정안 처리 협조하라”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시의회·5개 구의회 연내 통과 촉구

문화전당 국가기관서 법인 전락 위기

민주당 지도부 과감한 결단도 요구

국민의힘 반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와 광주 시의회,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기초의회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지난 8월 발의한 아특별법 개정안은 '특별법 5년 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인력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위 문화예술법안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의결이 불발됐다. 아특별법이 올해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전락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80여개 문화시민단체는 "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도부는 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결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문화시민단체는 15일 광주시의회 열릴 기자회견에 앞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화전당의 운영방식 결정이 연말로 도래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민주당 지도부의 과감한 조치가

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난파작전인 문화전당이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좌초하느냐는 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려 있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에서 첫 삽을 뜬 문화전당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복합문화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해 끊임없는 부정과 왜곡, 5월 정선의 검열과 훼손,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으로 편취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제외하고는 문화전당의 정상화 의지는 빈약하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 민주당의 존재감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 5개 자치구 의회는 이날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의회는 "국민의힘은 아특별법이 논의조차 못 하게 심사 소위를 파행으로 운영하더니 최근에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고용 문제 등 준비가 필요하며 논의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또 "전당이 본래 법인 조직이었던 것을 국가 소속기관으로 바꾸려 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모습과 호남 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보여주는 '정치적 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아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담양습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13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전남 방역당국이 조류 출몰지역을 방역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코로나 확산에 지지율 악재 된 'K-방역'...여권 위기감 고조

문 대통령 지지율 30%대 최저치

리얼미터 "공수처법 처리 잘못" 54%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3일 10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대유행이 가시화되면서 정국의 유동성도 더불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 선제적으로 확산을 막아온 'K-방역'은 전세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등 여권의 지지율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K-방역은 이제 여권에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이달 들어 3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민심은 점차 흔들리고 있다. 12월 2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긍정 평가 이유 가운데 '코로나19 대처'는 2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지난 4월 60%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락한 상황이다. 또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중후반대

로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과 표류하는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확산은 여권에 '얹힌 데 덮친' 악재인 셈이다. 특히, '코로나19의 겨울 대유행 경고'가 잇달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논총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3차 대유행의 장기화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다. 3차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현실화된다면 방역의 피로도가 최고조로 달하고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선진국들과의 '백신 디바이드' (격차) 논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장기화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민주당 대선 경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야권은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미국, 영국 등은 접종을 벌써 시작했는데 (왜) 우리

는 백신 개발도, 구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하다가 방역도, 경제도 폭망 직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여권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조기에 진정시킨다면 다시 민심을 다잡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연말이나 연초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이 가시화된다면 민심이 안정되면서 오히려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겨울은 길고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K-방역은 이제 정국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한편,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반응이 전체 응답의 54.2%로 집계됐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담양습지 야생조류 분변서 추가 AI 검출 함평 고막원천·순천만 이어 전남 3번째

전남 6개 확진 가금농장 하천 인근

철새도래지 일대 방역특별지역 지정

출입 금지·이동 제한·소독 강화 조치

담양습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올 겨울 들어 함평 고막원천(7일), 순천만(8일)에 이어 3번째 야생 조류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로 가금농장 AI 발생 위험이 한층 커지는 모양새다. 전남지역 고병원성 AI 확진 농장 6곳 모두 저수지 등 소하천 1.6km 이내 위치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야생 조류 분변에 의한 감염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14일 "담양습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13일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과 주변의 철새도래지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 강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확진 사례 발생 지점 반경 500m 내 지역에서는 사람·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 농장은 이동을 제한했다. 또 해당 지역 사군의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AI 특별관리지역 철새도래지에 대한 격리·소독과 함께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 및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 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전국 곳곳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해서 검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 농가는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13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영암군 덕진면 오리 사육농장 2곳과 관련해 전남 방역당국은 동종 계열사 농장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대상 농가 33곳 가운데 24곳은 음성 판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9곳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9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